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내 주는 강한 성이요(찬384/새585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재호 집사 2부/김정태 장로 3부/김재훈 집사 4부/박희주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내 주는 강한 성이요(조라미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사도행전(Acts) 19:8-20.....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3:4-14

말씀 Message ..... 1, 2, 3부.....Rev. Paul Jeong **정승락 목사**  
**말씀이 흥왕하더라**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46): 연락 끊고 은혜로 달리다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찬209/새285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축도 Benediction ..... Rev. Paul Jeong **정승락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 베델의 두란노 서원

The Tyrannus Vow of Bethel



정승락 목사 / Rev. Paul Jeong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10월 31일이지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외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개혁자들의 뜨거운 마음이 떠오릅니다. 잠든 시대를 깨우는 것은 언제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뿌리를 따라가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완고한 유대인들을 피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은 모두가 일을 멈추고 쉬는 뜨거운 한낮,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바울은 새벽부터 일어나 천막을 만들고, 모두가 쉬는 시간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말씀'을 향한 불꽃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못지않게 놀라운 이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성도들이었습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에 잠을 쫓고 분주함을 뒤로한 채 말씀 앞에 나아갔던 그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베델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며, 저는 베델 안에 바로 그 '두란노 서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훈련의 자리에서 함께 울고 웃던 순간들, 팬데믹 중에도 줌(Zoom) 화면으로 눈을 맞추며 말씀을 나누던 시간, 설교 녹취와 나눔 속에서 삶이 변화된 간증들—그 모든 기억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첫 제자반은 온 셀식구가 함께 등록해 매주 가정에서 모였고, 누구도 여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도로를 뚫고 오시던 발걸음, 자녀를 등하교시키며 시간을 쪼개 오시던 걸음, 깊은 밤 잠을 줄여 숙제하고 말씀을 암송하던 그 헌신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기 위해 기꺼이 수고하시는 여러분 이야말로 오늘의 진정한 개혁자들입니다. 500년 전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말씀'의 구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베델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신 당신, 바로 당신이 베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날 베델에 세워진 '두란노 서원'의 주역이며, 그 헌신 위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Today is Reformation Sunday. October 31st is the day when Martin Luther nailed his 95 Theses to the door of the Wittenberg Church in Germany. It reminds us of the passionate hearts of the Reformers who cried "Sola Scriptura"—"Scripture alone"—and longed to return to the Word. In truth, what awakens a sleeping generation has always been the power of the Word. And when we trace that power, we arrive at Acts 19, at the School of Tyrannus in Ephesus.

In Ephesus, the Apostle Paul, facing hardened Jews, withdrew to the School of Tyrannus and for two years taught daily without rest. Amazingly, those sessions took place during the hottest hours, from 11 a.m. to 4 p.m., when all others rested. Paul rose early, worked making tents through the morning, and during the rest hours taught with tireless passion. His whole life was a blazing devotion to "the Word alone." But just as great as Paul—perhaps greater—were the nameless believers who gathered then to hear the Word. In the most weary hours, they fought off sleep, left behind busyness, and came before the Word. Because of their passion, "all the Jews and Greeks heard the Word of the Lord," and revival began.

For the past ten years of discipleship training at Bethel Church, I dare say Bethel has its own School of Tyrannus. My unforgettable memories are those moments of sharing, laughing, and weeping together in training. The first discipleship group registered as a whole cell and met weekly in members' homes instead of at church. During the pandemic, we looked at each other through Zoom screens and shared the Word. I remember those who struggled with memorization, and the testimonies of lives restored and changed through the Word—all deeply engraved in my heart. One thing is certain: not one person joined because they had extra time. The Lord remembers every weary step after long workdays, every rushed moment between school drop-offs and pickups, every late night spent studying and tremblingly memorizing Scripture. The Lord remembers every effort and devotion.

You, who labor so that the Word becomes life and life becomes the Word, are the true reformers renewing the Church today. The cry of the Reformers—"Scripture alone"—is alive in you. The hope of Bethel lies nowhere else. You, who come longing for the Word—you are the hope of Bethel. Each of you is part of the School of Tyrannus being built in our midst. And upon your burning devotion, we believe this promise continues: "The Word of the Lord grew and prevailed mightily."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정승락 목사

# 말씀이 흥왕하더라 사도행전 19:8-20

1.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회당의 문이 닫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내 삶에서 계획이 틀어지고 "문이 닫혔던" 경험이 있나요? 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2. 에베소 부흥의 시작은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이 말씀 훈련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을 했나요?(행 19:9-10)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값비싼 헌신'은 무엇인가요?
3. 오늘 본문은 말씀의 기초가 놓이지, 바울이 아닌 '말씀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이 주어가 되어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은 무엇이었나요? (11절, 13-17절, 18-19절)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4. 사람들은 회개하며 '은 오만'(노동자 130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마술 책을 불태웠습니다(19절).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 이자 재산이었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책을 불태운 행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에서 불태워 버려야 할 '은 오만'짜리 우상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5. 에베소의 '아데미 숭배' 시스템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의 '교육과 성공'이라는 우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 복음으로 이 시스템을 변혁하기 위해 가정과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적용하기



예배 간증  
엘리사 새벽기도회

# 선물 같은 일주일

이번 예배 엘리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며, 최대한 매일 참석해 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먼 저에게,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가는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지만, 같이 예배에 속한 룸메이트의 도움과 주님의 부르심으로 첫날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한 곳에 모여 공동의 기도제목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순간은 큰 은혜였습니다. 비록 육체는 피곤했지만, 감사와 충만함으로 선물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새벽부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회진과, 함께 기도해주시는 예배 형제자매, 기도회를 준비해주시는 많은 손길들에 감사드리며, 다음 새벽기도회에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지웅(청)

이번 OICOS와 새벽기도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

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드린 청년들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육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OICOS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저희 예배를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현우(청2)

이번 새벽기도회 동안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엘

리아의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사처럼,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장년부의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길을 먼저 닦아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도 복음의 사명이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깨어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예배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대와 세대를 잇는 기도의 흐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가현(청3)



사역 소개  
베델워십 주일팀

# 모든 세대를 잇는 찬양의 다리



베델워십 주일팀은 박경철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찬양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며 세워지도록 섬기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바쁜 일상이 있지만, 모든 팀원은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

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그분의 은혜를 삶 속에서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2부 예배는 전통적인 찬양과 오케스트라 협연을 통해 경건하고 깊은 예배를 드리며, 3부 예배는 젊은 세대의 감성과 문화를 반영한 현대적인 찬양으로 활기차고 자유로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의 예배가 공존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러지는 찬양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복음의 울림이 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예배의 장이 됩니다. 찬양팀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 기도와 교제를 나누며 예배의 마음으로 연습하고, 음악적 완성도보다 예배자의 진실된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악기팀은 키보드, 드럼, 베이스, 일렉기타, 퍼커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조화로운 연주로 예배에 깊

은 감동을 더합니다. 각 팀은 맡은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연주하며, 모든 악기와 목소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사역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싱어를 모집하고 있으며, 악기팀 또한 언제나 함께할 새로운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적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베델워십 주일팀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성도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꾸준히 성장하며, 세대와 세대를 잇는 찬양의 다리로 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성희 집사

**사역 간증**  
바나바

# '아멘'의 기적

'권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오늘 아이가 소망부에서 처음으로 '아멘'이라고 했대요. 선생님이 잘못 들으신 줄 알고 다시 물어보셨더니, 다시 또렷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네요.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이 메시지는 제가 새가족으로 섬겼던, 소망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 보내주신 카톡 내용입니다. 처음 그 가정이 베밀에 오셨을 때, 마음속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착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으시며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아이를 위해 목사님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순간, 함께 울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매 주일 본당 앞에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며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작은 '아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때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새가족팀 바나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새가족을 맞이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과 함께 긴장도 됩니다. 부족한 제가 그분들을 돕는 일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임을 매번 느낍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4주간의 교육과 셀 배정까지 함께 걸어주는 일입니다. 또 새가족 환영만찬회에서 식사하며 교제할 때, 처음의 낯선 얼굴이 미소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몽클해집니다. 환영회 마지막에 담임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신자가 아닌 헌신자이십니다.'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양육반과 제자훈련을 거쳐,

이제는 셀목자가 되어 다른 새가족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도 주일이 되면 새가족 텐트에서 제가 섬겼던 분들이 자녀 손을 잡고 찾아와 반갑게 인사합니다. 교회 뜰에서 봉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가족들을 기다립니다.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실지 바라보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선민 권사



**믿음의 고백**

#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기를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양을 부르며 조용히 눈을 감으면, 어린 2학년이었던 제 모습과 우리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목장 모임과 선교회 모임에 늘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우리 가족은 '추수감사 가족 찬양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세 딸은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땀은 채, 부모님과 함께 다섯 식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에 생생합니다. 무대에 서기까지 매일 저녁마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1절, 2절, 그리고 간주 후의 3절까지. 저는 알토 파트를 맡게 되어 박자와 화음을 맞추느라 힘들어했고, 눈물도 흘리

며 꾸중도 들었지만, 결국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찬양을 완성해냈습니다. 그때는 가사의 깊은 뜻을 잘 몰랐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부모님의 나이를 훌쩍 넘어선 제가 이 찬양을 다시 부를 때면,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감사함에 눈물이 절로 납니다.

즐거운 동산 같았던 어린 시절의 가정을 떠올리면, 부모님이 우리 세 딸을 위해 얼마나 끊임 없이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엄마가 되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부모님처럼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자신이 없고, 오히려 부족함만 크게 느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제 마음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무대 위에서 떨던 2학년 아이가 이렇게 자라 지금의 제가 된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마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마저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힘을 얻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조수진 집사



사역 간증  
차량

# 감사로 채운 운전대



한참 팬데믹이 진행 중이던 2021년, 하나뿐인 딸이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 유학을 결정하게 되면서 저는 적지 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곧 딸을 유학 보내고 아내도 오가며 챙기게 되면 '반(半)기러기' 생활을 해야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ですよ.

예상치 못하게 회사 내 전근 기회가 주어졌고, 마침 딸이 다닐 학교와 같은 지역인 얼바인 사

무실로 배정되면서, 우리 가족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곳 얼바인에 이주하게 되었고, 베델교회도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출장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기러기 생활을 예상했지만,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 어떤 이유보다 감사했고, 이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단지 말로만이 아닌 섬김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베델교회 새신자 환영회에 참석했고, 목사님께서 "이제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로서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 주차·차량팀에 지원했고, 밴 셔틀 운행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버스 면허까지 취득해 지금은 매주 교회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차량팀은 주일 주차장 운행뿐 아니라,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선교, 리트릿, 베델동산, 공항 픽업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버스를 아끼며 직접 세차하고 지붕 페인트를 칠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버스를 운전하며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찬양을 들으며 교회와 주차장을 오갈 때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 고백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웃는 얼굴로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김영훈 집사

교회학교  
CIM 교사 간증

# 사랑을 나눠주고 있어요



사춘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온 저는 낯선 환경 속에서 서툰 영어와 못한 외모로 친구들의 놀림을 받으며, 하루 아침에 보이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오신 부모님께 힘들다는 말을 꺼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롭던 시절,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주셨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은 어른이 된 제게 CIM이라는 아

름다운 공동체를 선물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합니다. 한때 외로움 속에 있던 저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아이들이 품은 이 질문들은 과거 제 마음속에서 마구 떠오르던 물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질문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때로는 짧은 나눔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가는 세대로 세워가십니다.

저는 그 과정을 곁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세대를 잇고 계신지를 실감합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 속에서 심령의 회복을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상처들을 어루만지시며, 섬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흠뻑 젖게 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CIM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일하시고, 섬기는 자들에게도 회복을 주시며,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계속 "Christ In Me"의 정체성을 굳게 세워가며,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날마다 누려가길 소망합니다.

이예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정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해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 멕시코 일일 단기선교

오는 11월 15일(토)에 있을 멕시코 일일 단기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국경을 넘어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손길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이들과 함께 게임과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사역, 몸이 불편한 현지인들을 돕는 의료 사역, 미용 사역, 눈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시력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경을 제공해 드리는 안경 사역, 노방 전도/찬양 사역, 현지의 필요한 건물들을 짓는 것을 도와드리는 건축 사역 등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리고, 모든 선교 팀원이 한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며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보내는 손길과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루 동안의 선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결단이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나누는 멕시코 일일 단기선교에 함께하세요!

- ▶ 참여 방법: 교회 홈페이지나 QR 코드를 이용해서 신청 등록 가능합니다.
- ▶ 준비 모임 일시/장소: 11월 4일(화), 11일(화) 비전채플 오후 6시 30분
- ▶ 문의: 이양수 집사 (323)793-1479, 최호경 집사 (714)398-3914



###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	11/2:	①부-다무라고조	②부-김종학	③부-김진원	④부-변은재
	11/9:	①부-마상오	②부-박세환	③부-박성남	④부-이민수
	11/16:	①부-김주홍	②부-김학남	③부-박재문	④부-주 연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1월)	11/1: 김호경	11/8: 김종현	11/15: 김효선	11/22: 나성욱
강단꽃(10,11월)	10/26: 이인철	11/2: 황미동, 황성희	11/9: 이선옥, 이성애	11/16: 김인홍, 정병화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박필연 다음주 | 의사-박현진(한의학), 간호사-윤경자

###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익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익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기성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10월 마지막 날을 OICOF로!!!** 온 세대 예배는 'OICOS'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10월 31일(금) 교육부 Family Fall Fest에 우리 자녀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예배, 금요일 저녁 '오이코프(OICOF)'에 베델의 모든 성도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10월 31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오후 5시 30분부터 맛있는 Food Truck이 찾아옵니다. 구매 후 이용 가능)

◆ **임직을 위한 엘리사 새벽기도회** 2026년 임직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엘리사 기도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임직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피택여부에 상관없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11월 4일(화)~7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중직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 **목장별 추수감사축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목장별로 온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장기자랑과, 전교인 만찬 저녁 식사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축제에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문의: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조광종 집사 (949) 706-4168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고 베델가족이 된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와 함께 하는 만찬과 은혜로운 교제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시: 11월 8일(토) 오후 5시 (4시 20분부터 담임목사와 미니데이트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장소/문의: 유년부실, 이상수 집사 (714)905-6188, 김진원 집사 (714)323-5795

◆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청교도의 성경적 정신 위에 세운 미국의 회복과 연합을 위하여 다민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시/장소: 11월 2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

◆ **교회학교 Family Fall Fest 및 캔디 드라이브** 베델 온 가족 축제인 Family Fall Fest(10월 31일)의 등록이 각 부서 링크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캔디 도네이션(견과류, 할로윈 장식 제외)도 받고 있습니다.  
 대상/문의: 영아부-초등부, 소망부, 각 부서 전도사

◆ **BYM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등록** BYM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Kainos', 'RE:-STORE'라는 주제로 12월 21일(주일)-23일(화)에 각각 열립니다. 등록은 큐알코드로 해 주시면 됩니다.  
 중등부 장소/문의: Pali Retreat, Cindy Lee 전도사 (213)335-9049  
 고등부 장소/문의: Pine Summit,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 **Samarita Purse Shoe Box 나누기 캠페인** 전 세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담은 선물 상자를 보내는 사역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각 가정이 나눔의 소중함과 기쁨을 함께 체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10월 26일(주일)-11월 16(주일), 체육관 앞 부스에서 박스 픽업 후 제출  
 문의: 김정범 집사 (714)623-0919

◆ **교회 청결 캠페인(No Food)**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본당 건물 및 비전센터 안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말씀을 배우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교실과 채플에서는 음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 일일 선교 팀원 모집** 멕시코 일일 선교가 11월 15일(토)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7면 참고)  
 날짜/문의: 11월 15일(토), 이양수 집사 (323) 793-1479, 최호경 집사 (714) 398-3914

◆ **남가주 음악가 협회 주관 합창 페스티벌** 11월 2일(주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정기 제직회** 11월 8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3/4 분기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온두라스 단기선교가 10월 29일(수)-11월 2일(주일)에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김진형/김지영 성도 가정에 아들 유준(Eden)이가 10월 9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옥녀 성도(김미숙 권사의 모친, 김의신 장로의 장모)께서 10월 16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민봉환 권사님(민재익 집사의 아내)께서 10월 19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은숙 권사님(김문철 집사의 아내)께서 10월 19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문병석 집사님(조 숙 권사의 부친, 조만걸 장로의 장인)께서 10월 23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가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 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mailto:bgrcenter@hotmail.com)

# The Word of the Lord Grew and Spread Widely

## Acts 19:8–20

1. In Ephesus Paul experienced his plan go awry and the door to the synagogue closed. Then, he discussed the Word for two years in the lecture hall of Tyrannus. Have you ever experienced plans go awry or “doors closing” in your life? Please share how God guided your way with His Word when this happened.
  
2. The beginning of revival in Ephesus was due to the training in Word of the Lord. What specifically did Paul and the disciples commit do in order to train in the Word? (v. 19:9-10) In order for us to worship the Word, what is the “costly sacrifice” that we can gladly make?
  
3. Today's verses emphasize that once a foundation of the Word was laid, it was not Paul but the Word itself that began the work. What are three things that result when the Word is the main subject? (v. 11, 13-17, 18-19)
  - ① \_\_\_\_\_
  - ② \_\_\_\_\_
  - ③ \_\_\_\_\_
  
4. People in repentance burned scrolls of sorcery worth fifty thousand drachmas (130 years of earnings for a laborer). They gave up what is essentially their identity and wealth. In present day, how can we apply the act of ‘burning of the scrolls’? Let’s discuss what is the idol worth ‘fifty thousand drachmas’ in our lives.
  
5. The system at the time in Ephesus for ‘worship of Artemis’ can be compared to the idolatry of ‘education and success’ in present time. In order to go beyond just ‘protecting our faith’ and to transform this system itself, what specifically must the family and church commit to do?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